

# 世界史를 변화하게 한 책들

## 책의 힘은 옳과 옳에 있어서 다같이 강력하다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 시대를 초월한名著들

미국의 로버트 다운즈(Robert B. Downs)가 쓴 「세계를 변화시킨 책들」(Books that Changed the World)은 책의 목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독창적 저서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있어 그 進路를 바꾸어 놓은 15권의 저서들을 통해서 한권의 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사후의 현상으로 반추해 보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추천도서의 목록으로 대우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는 르네상스 이후의 저술로서 문학·종교·철학분야를 제외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이 세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 목록의 첫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에는 우선 그 목록들을 먼저 보자.

### 【사회과학분야】

- ① 「군주론」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 ② 「常識」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 ③ 「국부론」 애덤 스미드(Adam Smith)
- ④ 「인구론」 토머스 말더스(Thomas Malthus)
- ⑤ 「시민주의의 저항」 도로(Henry David Thoreau)
- ⑥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스토우(Harriet Elizabeth Beecher Stowe)
- ⑦ 「海上權力史論」 앨프리드 머헨(Alfred Thayer Mahan)
- ⑧ 「地政學的史論」 헬퍼드 매킨더(Sir Halford J. Mackinder)
- ⑨ 「나의 투쟁」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 【자연과학분야】

- ⑩ 「天體의 回轉에 관해서」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 ⑪ 「血液循環의 원리」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 ⑫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뉴턴(Sir Isaac Newton)
- ⑬ 「種의 기원」 다윈(Charles Darwin)
- ⑭ 「꿈의 해석」 프로이트(Sigmund Freud)
- ⑮ 「특수·일반 상대성이론」 아인슈타인

### 위대함을 인정받은 책들이

실은 저자의 능력 때문이었는데,

아니면 그 시대의 상황이

그것을 탄생하게 하였는가.

위대한 책들은

그것이 썩어진 시대상황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느 한 시대를

대변하면서도

그 문제의식이 모든 시대를

횡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저자의 특별한 혜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Albert Einstein)

이 목록들은 보다시피 절반쯤은 일반적 교양도서 목록들에도 들어 있는 것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생소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생소한 것들의 부분이 저자가 세계를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된다.

저자는 물론 그 저서에서 이 15권의 책을 자신의 안목대로 분해하고 있지만, 그 내용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책들을 골라낸 그 자신의 여러가지 기준들이다.

### 시대상황과 著者の 慧眼

그는 우선 이 책들이 세간의 평균적 상용 표현에 의한 '良書'와 '大作'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에는 良書와 大作이라는 평가에 대한 世俗의 상식적 관점에 대한 저항이 들어 있다.

다음에는 책들의 '영향'에 대한 소견이 나온다. 영향으로 따지면 물론 문학작품들일 것이라고 그 자신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그 영향은 '感銘'의 영향이 아니겠느냐고 규정한다. 또 문학적 영역의 범위를 넓혀 본다면 문학작품보다는 기행문들이 더 영향이 크다는 견해를 펴려한다.

예컨대, 마르코 폴로의 기행문은 13세기에 바로 미지의 동양을 서양에 열어준 결정적 세계사의 주역일 수도 있으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書翰」들 역시 같은 의미부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이 그룹에 마르틴 발트제빌러의 서한들(1507)과 16세기 말에 나온 리처드 해클루트著 「莫口民의 주요 항해, 여행, 교통왕래순례기」 및 새뮤얼 퍼체스著 「순례기」도 추가한다. 그리고 줄 베르네의 「80일간의 세계일주」(1872)도 자격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분명하게 변화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채택한다.

그래서 도로의 「시민주의의 저항」이 도로의 다른 저서 「숲속의 생활」보다는 도로의 저서내에서도 더 탁월한 것일 수 없지만, 「숲속의 생활」을 버리고 「시민주의의 저항」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문을 모든 책에 다시 한번 가한다. 즉, 위대함을 인정받은 책들이 실은 저자의 능력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그 시대의 상황이 그것을 탄생하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이다. 15권의 책들에 있어서도 이 질문은 심각하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바로 이탈리아를 外侵에서 해방시키려는 분명한 목적에서 씌어진 것이니, 권력정치의 해부를 목표로 씌어진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애덤 스미드가 「국부론」을 쓰고 있을 때 또한 영국에서의 상황은 상공경제의 팽창의 준비가 완료된 시기였다. 토머스 페인의 「상식」은 아메리카 독립혁명을 폭발시키는데 기여했지만, 이미 폭발 직전에 와 있었던 것이 아메리카의 상황이었다. 스토우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어느 한 시대, 한 시기를 대변하면서도 그 관점이나 문제의식이 모든 사태를 횡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또한 위대한 저서들을 남긴 사람들의 특별한 혜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책읽기 기술'의 포인트

그래서 저자는 이 책들을 고른다. 하지만 15권의 저서를 쓴 저자들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또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이들 저자 15명의 대부분은 급진론자이거나 熱狂者이거나 혁명가이거나 선동자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책 내용으로서의 중요한 부분인 文章力로서 보면 거의가 다 또 名文일 수가 없다. 서툴고 거칠고 다듬어주기도 어려운 수준의 文章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그시대의 정황이 이들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냐고 물어야 옳게 된다.

받아들이고서도 문제는 더 계속됐다. 받아들인 것이 혜택을 준 것도 있지만, 그러나 禍를 준 경우도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버트 다운즈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책은 분명히 다같이 옳과 옳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나의 의도는 도덕적인 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지 않고 단지 서적이 生動的이고 강력한 수단이나 도구나 武器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데 있다.”

이 의도를 여기에 굳이 옮기는 것은 바로 추천되는 모든 도서목록들이 왜 이 책이 추천되는가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또다른 영향을 언제나 대기하게 부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독서프로그램의 권위자인 모티머 아들러도 그의 책임기 기술의 첫번째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느 책이든 그 책이 쓰는 주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해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권의 책을 그 책 한권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필요와 의도에 의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은 곧 책에 의한 의외의 폐해와 부작용의 영향만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점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특히 크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러 사회, 여러 시대의 저서들이 우리 사회에 크게 들어와 있지만 그 책들이 과연 그 책 한권들의 선명한 立地와 時代性과, 그리고 또 변화된 立地와 時代性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야 하는 섬세한 부분들의 의미들이 충분히 전체

된 조건에서 읽히고 있는지는 한마디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책의 힘은 로버트 다운즈의 결론대로 福일 수도 있고 禍일 수도 있다.

바로 이점이 지적됐다는 점에서 이 목록 15권의 의미는 각별한 것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책의 힘은 善과 惡에 있어서 다같이 강력하다는 것이 곧 이 목록의 기본적인 메시지인 것이다

#### 스탠퍼드대학의 교양도서목록

앞선 회에 거듭 언급하면서도 그 목록을 분명히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 즉, 미국 스탠퍼드대의 교양도서목록이다. 15권으로 되어 있는 이 목록이 그간 이 시대의 목록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는 것까지는 소개해 왔다. 그리고 이 목록을 적지 않았던 것은 이번 회의 15권 목록과 같이 병렬해 보기 위해서이다. 수자가 같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목록이든 그 목록의 의도와 취치가 더 중요한 것인지 목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우리는 이 두가지 15권짜리 목록에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탠퍼드대 목록 역시 '세계의 결정적인 책'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고, 이 도서를 중심으로 한 강좌의 이름은 「문학과 문명 세미나」였다.

- ① 「聖書」
- ② 「選集」 루소
- ③ 「자본론」 마르크스
- ④ 「군주론」 마키아벨리
- ⑤ 「종의 기원」 다윈
- ⑥ 「大革新」 베이컨
- ⑦ 「방법서설」 데카르트
- ⑧ 「國家」 플라톤
- ⑨ 「유토피아」 모어
- ⑩ 「수상록」 몽테뉴
- ⑪ 「인간오성론」 로크
- ⑫ 「세계사의 개념」 헤르더
- ⑬ 「인구론」 맬더스
- ⑭ 「논리학」 헤겔
- ⑮ 「選集」 니체

로버트 다운즈가 자신이 선정한 책들을 어

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 두군데 보아 두자.

그는 토머스 페인의 「상식」의 끝부분에 이렇게 쓴다.

“페인의 末年에 볼 수 있었던 반감, 허위, 그리고 강력한 편견들은 최근에까지 가지지 않았다. 신성로마제국과도 같이 추악하지도 않고 보잘 것 없지도 않고 無神論者도 아님에도 디어더어 루즈벨트는 그를 가리켜 ‘추악한 무신론자’라고 말했다. 1933년까지도 페인에 관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뉴욕시의 어느 방송국에서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自由가 있는 곳에 내 나라가 있다’고 한 프랭클린의 말에 대해 ‘自由가 없는 곳에 내 나라가 있다’고 말한 페인의 응답 이상으로 그를 더 잘 나타내는 지표는 없다.”

도로의 「시민주의로서의 저항」에 대한 마감은 이렇다.

“패링턴은 도로를 평하여 이렇게 썼다. — 장 자크 루소가 풀어놓은 18세기의 개인주의 철학, 강력한 자유주의는 도로 때에 와서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최고도로 충분히 표현됐다. 그는 통제된 사회질서에 반대하여 자유방임주의적 반응을 가장 완전하게 구체화한化身이며, 인간적 자유의 꿈을 좌절시키는 싸구려 경제학을 가장 신랄히 비난한 사람이었다. 그는 착취의 시대가 그의江河를 雜草들로 콕막혀 메이게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서거해서 다행이었다. 즉, 그가 희망을 걸었던 自由人들의 앞날이 얼마나 멀고 먼 것인지 미리 알지 못한 점에서 다행이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 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과 0100 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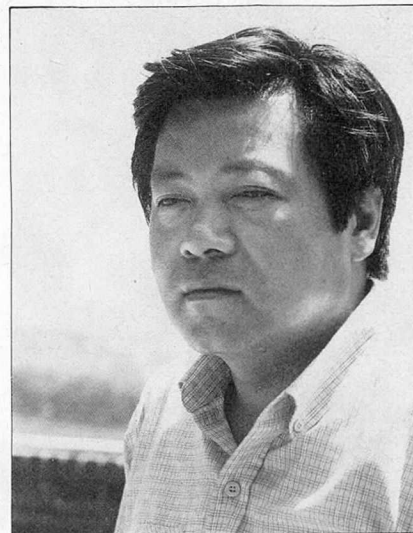
#### 저작구상

## 시대 따라 변천한 한국인의 음악관

權五聖

한양대 교수 · 한국국악학회 회장

비교문화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의 음악관은 시공을 초월해 이상적인 古樂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필자는 茶山 丁若鏞의 「興猶堂全書」 중에 실려 있는 「樂書孤存」을 읽어 나가던 중 평소 「한국사람들의 음악관이 어떤 것이었나」하는데 대한 가장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秦漢 이전의 「樂」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음악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周禮」, 「禮記」 중에 樂記, 「周易」 등에 點在하는 고대중국의 樂論과 현행 국악의 구조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갖고서, 조선조의 각종 개인문집이나 악보(琴譜)에 실려 있는 악론에서 그러한 고대로부터의 악론이 어떻게 수용되어왔던 것인가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비교문화학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음악관이 시공을 초월하여 이상적인 古樂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황하다가 1978년 중국에서 발굴된 曾侯乙墓의 3층구조를 가진 64개의 鍾이 매달린 編鍾에 대한 간이보고서와 그에 관련된 몇 종의 논문을 최근에 접하게 됨으로써 先秦중국음악과 한국의 고대음악과의 연관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또 한편 필자가 다년간 현장조사를 통해서 경험하였던 한국의 구전민요와 巫歌에서의 원초적인 소리의 상징성과 생명력이 「詩經」 「楚辭」와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소의 막연했던 생각에 무엇인가 실마리가 풀릴 수 있으리란 기대감을 갖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에 대한 저술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한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음악에 대한 개념이 개화기 이후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옴으로써 개화기 이전의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樂」에 대한 인식과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필자 또한 그렇게 교육되었기 때문에 사고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사고가 원전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한 면을 시급히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재래한국인의 음악관이 어떠한 모습으로 시대에 따라 변천되고 있는가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한국의 음악사상」(가제)이란 짙막한 저작물로 집필할 구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관념적이고 주관적이고 演繹的 사고일지는 모르지만, 「古樂이 즉 今樂」이란 얼핏 생각하기에 모순된 명제와 같은 그것이 곧 앞으로의 한국의 민족음악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몰락해가고 있는 이른바 서양의 예술음악이 새로운 양상으로 뒤바뀌어 우리앞에 나타남으로써 특정시대, 특정양식의 서구음악을 가장 至高하고, 예술적이고, 세계적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동양적 樂의 本有개념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東道西器」란 관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가올 시대에 한민족이 주도해나갈 동양의 정신문화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될 우주론적 자연음악관이 「大樂必易」의 함축적 의미와 함께 「審聲而知音, 審音而知樂, 審音而知政」이란 소리의 무한한 생명력과 상징성이 초현대적으로 音表象(Tonvorstellung)될 때 전인류에게 무한한 「樂」의 인식이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며, 질서에 대한 조화로서의 樂의 효능이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된다.